Local p/06

청계천 1000번째 프러포즈

메트로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택시 승차거부 톱 '홍대입구'

NEWS p/02

수능날 지각 우려땐 112전화

NEWS p/03

메트로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제2604호

<자기차량손해보험료>

내년 자차보험료 35% 싸진다

차와 차끼리 부딪히는 충돌·추돌사고만 보장 등 고객이 직접 필요한 위험범위 선택해 부담 낮춰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자차) 등 충돌 과 같은 특정 피해만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차부문 보험료 부담을 35%까지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10년 만에 소비자 권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 자동차 표준약관 10년만에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 사유를 새로 정비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등이 삭제된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마약·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영업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한구 특수보험팀장은 "현행 면책 사유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별도의 면책 사유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정비했다"며 "이를테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지만 상법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면책 조항을 보험받는 사람마다 개별 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도 확대된다.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B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A와 B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의 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 시기가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청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강화된다. 또 자필서명 누락 시 보험 계약자의 계약취소권을 신설해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 늦추면 지연 이자까지 물어줘야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예정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상품 중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하는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YF쏘나타(2012년식) 소유자가 부부한정 35세 이상 운전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가입경력 3년 이상으로 A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표준약관 하에서는 18만1960원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차 대 차 충돌'만 선택해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11만7360원(약 35.5% ↓)으로 떨어진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민성기자

풍선만큼 점수도 올라가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이틀 앞둔 6일 수원 효원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뉴시스

文·安 후보등록 前 단일화 합의

정치혁신안 담은 '새정치 공동선언' 발표 등 공동합의문 7개항 발표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의 이름이 인쇄될 전망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만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6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양측 대변인이 전했다.

후보 등록 전까지는 20일 가량이 남았다.

문-안 후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단독 회동을 시작, 1시간여만에 회담을 끝냈다. 오후 7시15분부터 양측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회담 내용을 정리, 오후 8시쯤 7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막힘이 없었고, 서로 정치혁신과 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논의한 후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과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후보 단일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합의문에서 문-안 후보는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야한다"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못 박았다.

문-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앞서 정당 혁신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 방향을 담은 '새정치 공동선언'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양측 대변인이 전했다.

이들은 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서 서명 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두 후보는 ▲엄중한 시대 상황과 고단한 국민의 삶, 정치혁신에 관한 국민 요구에 대한 인식 공유 ▲기득권 포기를 통한 정권교체와 정치혁신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라는 내용에도 뜻을 같이했다.

/김유리기자

'단일화' 첫 걸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6일 단일화 회동을 마친 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부실만 쌓인 농협은행

가계·기업 연체율 두배 늘고… PF대출 떼일 위기 놓인 돈도 1조 넘어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이하 농협금융) 회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협금융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 개선이다.

그런데 농협금융 순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NH농협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산규모 약 1%조인 농협은행은 농협금융 총자산의 82.0% 순이익의 84.9%(6월 말 연결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다. 농협금융 측은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금융지주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농협금융의 건전성도 악화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현재 농협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23% 수준이다. 은행지주사 평균인 12.91%보다 1.7%포인트가 낮다.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다.

"서민금융도 좋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한 신동규 회장의 경영기조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2007년 0.61%에서 지난 2분기 1.13%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연체율은 0.75%에서 1.34%로 2.5배가량 더 늘었다. 연체율 증가는 부실률을 높이는 원인이다.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 농협은행은 지난 2분기 7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신한은행은 1조2700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농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도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4조1154억원(6월 말 기준)에 달했다.

농협은행보다 덩치가 큰 국민 등 4대 은행의 PF 잔액 평균 2조6659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더군다나 농협은행 PF 대출의 26.0%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어서 심각성이 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든 PF 사업장을 재평가해 장기간 부진한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군침 도는 타이베이의 맛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 박람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이 열린 가운데 타이베이 요리사가 타이베이 대표음식인 구운족발 양념산뇨장덕계질 등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인감 대신 '서명' 쓴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은행 대출 등에 사용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을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75% 깎아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 시 적용되는 취득세·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현행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서명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맞게 본인 서명으로 대체한다.

/박성훈기자 zen@

택시 승차거부 최다 '홍대입구'

택시 이용 최다 지역은 평일 역삼1동, 주말 서교동으로 나타났다. 승차 거부는 홍대입구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년간 택시 운행 기록을 분석한 '서울시민 택시 이용 특성'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일 택시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회사가 밀집한 강남역 인근 역삼1동이었고 여의동, 종로1·2·3·4가동, 청담동, 압구정동이 뒤를 이었다. 주말에는 젊은층이 즐겨 찾는 서교동이 꼽혔다. 택시 승차 거부는 홍대입구, 강남역 사거리, 종로, 신촌 순이었다.

◆ 디랄쥐 택시 걸리면 40만원

한편 서울시는 합승, 부당 요금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는 '디랄쥐 택시' 집중단속에 나섰다.

승객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하는 디랄쥐 택시는 승객을 채워 좋은 구간만 오가며 개별요금을 받는 수법을 쓴다.

이날 시는 "합승이나 장기정차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미터기 미사용은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정소라기자 urvsula@

경품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추첨 등의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를 이같이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소비자들이 경품 등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품가액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경품총액 한도를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늘린 것 이외에도 경품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zen@

수능날 지각때 112전화 걸면 긴급수송

지각이 우려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긴급전화 11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수능일인 8일 경찰관 7406명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5786명을 동원, 시험장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 등에 배치해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이 수능 당일 112를 통해 요청하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로 전국 1191개 시험장까지 이송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찰차 2087대 사이드카 742대 등 경찰차량 3526대를 가동한다

/김유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11.7>

글 그림 박상철

러시아 10월혁명 발생

1917년 11월 7일(러시아 구력 10월 25일) 오전 10시 트로츠키가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군이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의 기초한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하필은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서유럽 선진사회가 아닌 유럽 최빈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뒤이은 레닌의 독재에 혁명 빛이 바래고 만다 이후 70여 년이 지나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의 무자비한 철권통치 시기 시작됐다

못믿을 학교급식 쇠고기

서울 25% 도축당시 DNA와 불일치 ·유통과정서 '원산지 세탁' 한우 둔갑

담배 혼내주는 뿅망치 6일 서울 서초구청 식생활정보센터에서 열린 조기 흡연예방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뿅망치로 담배인형을 때리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된 쇠고기의 25%는 원산지가 뒤바뀌거나 육질 등급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학교 급식용 쇠고기 표본 109건을 거둬들여 DNA 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28건(25.6%)이 불일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우가 15건, 육우가 13건으로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나 품질 등급이 조작됐다

DNA 동일성 검사는 소 도축 시 보관된 DNA와 유통된 쇠고기 DNA 분석 결과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급식 쇠고기 검사의 높은 불일치율은 쇠고기 이력제가 업계 전반에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교 급식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 … 것으로 불일치 판정이 난 쇠고기가 원래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저항시인>

김지하 "안철수 이제 보니 깡통"

"지금은 여성리더십 필요한 시대"…박근혜에겐 덕담

유신 시절 저항 시인이었던 김지하(72 시인)씨가 5일 "지금은 여성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며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김씨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용서한 적은 없지만 지금 욕은 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 쪽으로부터 다섯 차례 국민대통합위원장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보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를 닮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자질이 뛰어나다고 평했던 안 후보에 대해서는 "촛불의 주역인 2030세대가 인터넷을 통해 안철수 관찰은 사람이라고 하고, 4060세대까지 이어지면서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뭐가 있겠구나 생각했다"면서도 "정작 후보가 돼서 하는 걸 보니 깡통이야 아직 어린애"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안 후보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거랑 거리가 멀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박동호기자

특검 "김윤옥 여사 강제조사는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강제조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김 여사의 조사 방식 시기에 대한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앞서 밝힌 대로 김 여사는 최고의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고 강제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박동호기자

박근혜 "집권후 4년 중임제 개헌…상설특검 도입" 정치 쇄신안 발표

단일화 맞불? 물타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5일 정치쇄신안을 내놓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맞불을 놓았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정당과 국회 정부 선거 관련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화를 다루진 않았지만 취임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기회균등위원회를 마련해 종합적인 인사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덕망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탕평인사를 펼칠 것"이라며 "총리와 장관의 인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당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의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없애는 등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예경위 상설화 100% 외부인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측근 비리 차단을 위해 특별감찰관제 도입 및 상설특별검사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새누리당은 문 안 후보가 후보등록 전 단일화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가치와 새로운 정치 등 어떤 말은 모두 포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참여 확대와 정치권 쇄신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 민심 얻는 자가 단일화 경쟁서 승리

남행열차 타는 文·安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최전선으로 꼽히는 호남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다 최근 문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거듭하면서 호남이 각축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문재인 내일 세 번째 방문

6일 문 후보측에 따르면 문 후보는 8~9일 광주를 방문, 호남 구애 작전에 나선다 대선 후보 확정 후 세 번째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지역 대기령 을 내리며 적극 지원했다 내부 조직 정비 차원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상호 공보단장 등 중앙당 인사도 잇따라 광주 전남을 방문하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 후보도 지난 4~5일 대선 출마 선언 후 네 번째로 호남을 방문했다 안 후보는 특히 5일 문 후보를 향해 단일화 회동을 제안하며 "광주가 그(단일화의) 씨앗이 돼주시고 그 중심이 되어달라"며 적극 공세를 펴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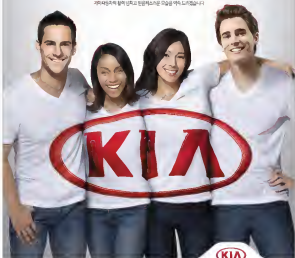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대선에서 호남이 의미 있는 결정을 했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의 키를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www.kia.co.kr

세계인이 좋아하는 100대 브랜드에 우리 브랜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글로벌 브랜드, 기아자동차

2012 세계 100대 브랜드에 오른 3개의 대한민국 브랜드
기아자동차가 그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기아자동차의 활력 넘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KIA
The Power to Surprise

KIA, 대한민국의 3대 글로벌 브랜드로서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청계천 두물다리 '청혼의 벽' 1000번째 커플 오지훈씨가 예비 신부 김효미씨에게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키스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1000번째 청혼

청계천 프러포즈 5년 만에 기록 – 성사율 100%

17일 결혼을 앞둔 오지훈(37)씨는 4년 동안 교제한 김효미(29)씨를 위한 멋진 프러포즈 방법을 찾던 중 '청혼의 벽'을 신청했다. '청혼의 벽'은 청계천에서 프러포즈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프로그램이다. 오씨는 "1000번째 신청자란 소식에 당황했지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는 흔치 않은 행운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청계천에서 청혼 이벤트를 펼친 1000번째 주인공이 나왔다.

서울시 시설공단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청계천에서 프러포즈를 한 1000번째 커플이 탄생했다.

이날 프러포즈 이벤트는 MBC 개그맨 양현씨의 사회와 뮤지컬 갈라 축하 공연 등으로 화려하게 진행됐다.

'청혼의 벽'은 2007년 12월 24일 첫 프러포즈 이후 5년 동안 1000쌍 모두 청혼 성사율 100%를 자랑한다.

이벤트 이후 헤어진 18쌍을 제외한 982쌍(98.2%) 중 377쌍(37.7%)이 결혼에 성공했고 나머지 커플들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결혼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10월~12월(35.5%)에 가장 신청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52.9%(526건), 20대 41.4%(414건), 40대 5.5%(55건) 순이었다.

정용하 청계천관리처장은 "두물다리는 성북천과 정릉천 2개의 물길이 청계천과 합류하는 곳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청혼의 벽'은 인터넷(http://propose.sisul.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외국인 관광객, 북촌한옥마을 가장 선호"

북촌한옥마을이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꼽혔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12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 관광객의 도보관광 희망코스 선호도' 결과에 따르면 북촌한옥마을이 '가장 가보고 싶은 코스' 1위(25.3%)에 올랐다.

이어 경복궁·효자동 코스(16.8%) 덕수궁·정동 코스(12.9%) 서촌 한옥마을 코스(12.7%) 성북동 코스(10.7%) 경희궁·서대문 코스(8.4%) 창덕궁 코스(8.1%) 창경궁 코스(4.9%) 순이었다. /김승현기자

"지하철역서 구운 계란 받으세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구운 계란을 나눠주며 출근길 시민들을 응원한다.

서울메트로는 7일 오전 8시부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방면과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근길 시민 2000명에게 구운 계란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계란자조금위원회와 함께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구운 계란을 나눠줌으로써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고단백 영양식인 계란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누름! 누름! 누름!

2012년 2관왕
고객만족도 1위!
서비스품질도 1위!

2012년 SK브로드밴드가 국가고객만족도(NCSI)는 물론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까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객님의 사랑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KS-SQI	2012년 초고속인터넷부문 1위
NCSI	2012년 초고속인터넷부문 1위
	2012년 IPTV부문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이벤트 기간 중 SK브로드밴드에 신규 가입하시면
푸짐한 선물과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2012년 10월 25일 ~ 12월 31일
- 당첨자 발표 1차 2012년 12월 10일, 2차 2013년 1월 10일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참조

모든 신규 가입 고객 대상 행운의 추첨 경품 증정

106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 대상 특별한 혜택

106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 대상 추가 추첨 경품 증정

통신요금 절약번호 106 / www.skbroodbond.com

"이대로 영원히" 5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드모인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내 미셸 여사와 포옹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마지막 유세 연단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아내 앤 여사를 포옹하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다. /AP 뉴시스

미 대선 첫 개표 뉴햄프셔주 산골마을선 오바마 - 롬니 '무승부'

오늘 오전 10시 윤곽

5 : 5 6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 투표소에서 진행됐던 5대5 무승부 선거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대통령 선거 첫 투표지인 뉴햄프셔의 딕스빌 노치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밋 롬니가 무승부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자정 가장 먼저 대선 투표가 진행된 딕스빌 노치에서 오바마와 롬니는 각각 5표씩을 얻으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다. 역대 진행된 대통령 선거 중 승자를 가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대선 때는 오바마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를 눌렀다.

이처럼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취심된 경가에서는 '2000년 대선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 득표에서는 뒤지고 선거인단 확보에서만 앞서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결에서 전국 득표는 고어 후보가 높게 나왔다.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부시가 앞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히 양측은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공방을 벌이다 연방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부를 갈랐다.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롬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백악관 입성 시나리오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개표 결과 양측의 선거인단 숫자가 동일할 경우 법에 따라 상원에서 부통령을,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롬니를 뽑고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에서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선출할 경우 '롬니-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선거 전문가들이 꼽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 대선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만화속 슈퍼맨의 고향 외계행성 크립톤 발견

유명 만화 캐릭터인 슈퍼맨의 고향으로 등장하는 외계행성 크립톤이 실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페이스닷컴은 뉴욕 자연사 박물관 헤이든 천체투영관의 닐 드그라스 타이슨 관장이 슈퍼맨에서 묘사하는 위치와 크기, 성질, 특징 등을 고려해 크립톤과 가장 유사한 행성을 찾아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적색왜성인 이 별은 'LHS 2520'이라 부르며 지구에서 27.1광년 떨어져 있다. 원작의 크립톤 행성은 지구에서 50광년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질량과 중력의 힘 역시 지구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타이슨 관장은 "슈퍼맨 새 시리즈 오픈을 앞두고 있는 DC코믹스의 요청에 따라 크립톤과 가장 유사한 행성을 찾는 작업을 실시했다"며 "도시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슈퍼맨을 도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s@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22-1551

등록 발행인	남 궁 호
사장 편집인	김 정 혁
광고국장 직대	김 한 열
서울광고문의	02)721-5358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02

today metro global 지금 세계는

선거일 술 마시면 처벌

온몸 96% 채운 문신녀

지문으로 출퇴근 '감사'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25 전사자 유해발굴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 직접 매장, 목격, 들은 사실 (유해발굴시 포상금 지급)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참여

· 거주지역 보건소 방문, 전화신청 가능 (자가채취)

※ 현역장병 참여 :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 참여장병에게 문화상품권 위로휴가 혜택

이 땅 어딘가에 외롭게 남겨진 13만의 호국용사들
그들은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전 화: 1577-5625 (오! 6·25)

인터넷: www.withcountry.mil.kr

KOSPI	10/31	11/1	11/2	11/5	11/6
	1912.06	1909.44	1918.72	1908.22	1925.17 (+16.95)

KOSDAQ	10/31	11/1	11/2	11/5	11/6
	506.31	508.83	513.37	515.14	517.53 (+2.39)

해외 증시	
Nikkei (일본)	8975.15 (−32.29)
Hang Seng (홍콩)	21944.43 (−61.97)
Shanghai (중국)	2106.00 (−8.03)
Dow Jones (미국)	13112.44 (+19.28)

EXCHANGE RATE	매매기준율 적용가
달러	1091.00
엔(100)	1362.22
유로	1394.30
위안	174.69

김중겸 한전사장 사퇴

김중겸 한전사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사장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측은 "듣은 바 없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청와대도 "김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해줌으로써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모나코로 출장을 떠나 6일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성훈기자

'엉덩이 무거워진' 전세 세입자

'더 얹어주고 눌러앉기' 영향 지난달 계약건수 전년비 57% 줄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계약이 올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매물에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전세거래 공개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 서울 주택 전세계약 건수는 7590건(계약일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적었다. 지난 9월(1만3203건)과 비교해서는 42.5% 줄어들었고, 지난해 10월(1만7872건)과 비교해서는 57.5%가 줄어든 것이다.

전세계약 건수는 올해 1월 1만6783건을 시작으로 2월 2만28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3월(2만2646건) ▲4월(1만8343건) ▲5월(1만7171건) ▲6월(1만6089건) ▲7월(1만5401건) ▲8월(1만5914건) ▲9월(1만3203건) ▲10월(7590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10월이 처음이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도봉구의 전세계약이 전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줄었다. 도봉구의 10월 전세계약 건수는 192건으로, 9월(414건)에 비해 53.6% 줄었다. 강남3구는 서초구(553건 → 290건 47.6%↓) 강남구(781건 → 458건 41.4%↓) 송파구(1246건 → 863건 30.7%↓) 순으로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모든 유형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닥터아파트 측은 "중개현장에서는 전세 물건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전세가가 올라도 재계약으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스피드광 니콘 D5200 - 연사 동급 최강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니콘이미징코리아의 DSLR D5200 발표회에서 모델들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DSLR D5200은 2416만 화소에 7.62㎝ TFT 멀티 앵글 액정 모니터를 탑재했다. 연사 속도는 초당 5장으로 DX포맷의 엔트리급 DSLR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니콘은 밝혔다. 출시일은 내달 중이다. /손진영기자 son@

'기준금리 2.75%' 이달 동결 전망 우세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대다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11월 기준금리 향방을 물어본 결과 모두 동결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내린 이후 두 달간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10월에 기준금리를 2.75%로 내렸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전된 모습이고, 유로존 위기도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경기 측면에서 인하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배상윤기자

가격이 다운!
선물도 내 품에 다운!

1 금액대별 할인행사

15/30/50만원 이상 구매 시 3/5/7만원 즉시할인

모든 구매고객께 등산방석 증정

20만원 이상 구매고객께 보온병 증정

2 1+1 이벤트

3in1 자켓 or
다운 자켓 구매 시,
플리스 자켓을 하나 더 드립니다

3 수능대박 더블 포인트 적립

수능 수험표를 제시한 구매고객에게
세정 포인트 더블 적립

이벤트 기간 : 11월 1일~11월 30일

매장 문의 : 02-2009-5183 / 7438 | 개설 가능 상권 문의 진지원 팀장 : 010-5447-3452

WENGER® 120년 전통의 스위스 아웃도어 「WENGER」를 센터폴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무연체 쌓일수록 금리 할인

씨티캐피탈 '특허받은 대출' 신규고객 첫이자 면제 행사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은 무 연체 실적에 따라 금리를 계속 할인해 주는 신개념 이자율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특허를 획득했다.

2010년 6월부터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연체 없이 대출을 사용하면 일회성이 아닌 시스템 개념을 통해 직전 이자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리 할인을 누리도록 하는 신용대출이다.

예를 들어 연 19.9%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첫 6회차 할부금을 모두 정상 납입하면 19.9%에 (100% - 3%)를 곱한 결과인 19.3%가 다음 회차부터 적용되며, 또 다시 추가로 6회 연속 정상 납부를 하면 19.4%에 (100% - 3%)를 곱하여 18.7%가 적용된다.

만약 대출 약정 기간이 36개월이고 만기까지 연체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최대 5번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초 19.9% 약정금리는 16.9%까지 할인되는 것이다. 실수로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6회 연속 무 연체 납입하면 이전에 받았던 할인이 이어서 다시 금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리 할인을 받은 고객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할인된 금리를 알려준다.

한편 특허 취득 기념으로 첫 결제할에 이자를 면제해 주는 고객감사 이벤트를 11월 말까지 신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씨티캐피탈 고객센터(1577-5001) 및 홈페이지(www.citicapital.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배성은기자

태블릿 PC 점유율에 애플 울고 삼성 웃고

아이패드 65%서 50%로… '갤럭시' 일년새 3배로

태블릿PC 강자 애플과 추격자 삼성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애플의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삼성은 3배 가까이 늘었다.

6일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3분기 애플 아이패드의 판매량은 14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점유율은 1년 전 59.7%, 2분기 65.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50.4%를 기록했다. 점유율 50%대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은 3분기 태블릿 시장에서 510만 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8.4%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삼성의 점유율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갤럭시탭'과 '갤럭시노트10.1' 등이 선전하면서 2분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전년 동기에 비해 판매량이 325% 증가했다.

아마존도 3분기에 250만 대의 킨들파이어를 출하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4.8%에서 9%까지 뛰었다. 에이수스는 240만 대(8.6%), 레노보는 40만 대(1.4%)를 판매했다.

톰 메이넬리 IDC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로 애플의 점유율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이패드 미니가 비싸 안드로이드 진영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서강 SLP 유아 올인과정 레인보우 브릿지 설명회

서강대가 운영하는 영어교육기관 SLP(Sogang Language Program, www.slp.ac.kr)가 5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부 몰입 과정인 '레인보우 브릿지'의 학당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명회의 주제인 서강 SLP의 유치부 몰입 과정 레인보우 브릿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유아교육 목표를 분석해 영어교육에 반영한 서강대학교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환경과 유아들의 정서, 요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직접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며,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언어, 신체, 사회정서, 인지 발달 등 전인교육을 지향하여 유아의 전반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설명회는 6일 송파, 7일 강남, 17일 강서, 24일 평촌 등 학당별로 개최되며 SLP 홈페이지(www.slp.ac.kr)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콘래드 서울' 12월 개장

호텔 체인인 힐튼 월드와이드는 특1급 호텔 콘래드 서울을 12월 여의도에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총 38층 434개 객실 규모로 IFC(국제금융센터) 서울과 바로 연결돼 쇼핑·문화·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 럭셔리'를 컨셉트로 내세워 어플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TV로 객실에서 웹서핑과 SNS를 이용하고 휴대기기 속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부대시설로는 피트니스 클럽인 '펄스에이트'와 '콘래드 스파'를 8층과 9층에 각각 운영한다. /박지은기자 pjw@

'패션 1번지'로 떠오른 홈쇼핑

유명브랜드·스타일리스트 내세운 GS·CJ 등 20~30대 백화점 고객 흡수하며 매출 급신장

요즘 홈쇼핑 TV채널을 돌리다 보면 패션 방송이 유달리 많다. 매진 행렬도 쉽게 볼 수 있다. 백화점 패션 매장이 한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품질과 알뜰한 가격,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홈쇼핑업체가 반영하면서 백화점을 대체한 구매 채널로 떠올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9월 말 GS샵의 패션상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잡화는 60%, 의류는 30% 증가했다. 올 상반기 CJ오쇼핑의 패션 트렌드 상품 매출 또한 지난해보다 36% 뛰었다. 롯데백화점의 1~10월 여성복 매출이 지난해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괄목상대할 성과다.

홈쇼핑업계의 패션 열풍을 끌어가는 곳은 맞수인 GS샵과 CJ오쇼핑이다.

GS샵은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들여오는 데 적극적이다. 이탈리아의 '질리오띠', 독일의 '라우렐' 등을 비롯해 최근 '베스띠벨리', '비지트인뉴욕' 등 백화점 입점브랜드를 안방으로 끌어들였다. 최근엔 스타일리스트 김성일과 쇼핑호스트 정윤정이 국내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패션 분야를 가장 먼저 강화하기 시작한 CJ오쇼핑은 홈쇼핑 패션 방송의 교과서로 통한다. 업계 처음으로 스타일리스트가 진행해 화제를 모은 패션 프로그램 '셀렙샵'이 최근 3주년을 맞았다. 3년 만에 20배 이상 매출이 커져 누적 매출만 1300억원을 올렸다. PB브랜드도 강화해 '럭스앤비고', 'A+G(엣지)' 등 13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CJ오쇼핑 '셀렙샵' 의 방송 장면. 스타일리스트 정윤기·가로수의 진행으로 유명하다.

CJ오쇼핑의 최윤경 트렌드사업부장은 "패션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가 홈쇼핑 고객으로 속속 유입되고 있다"며 "가장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엔 최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배우 고소영과 협업한 '에쉬 by 소영'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한효숙기자 hssoon@metroseoul.co.kr

버커루 '수능생 10% 할인' 이벤트

빈티지 데님브랜드 버커루가 수능 수험생들의 스타일링을 완성시켜줄 '수능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일까지 수험생들에게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구매고객이 버커루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쿠폰과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험생의 친구와 가족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열고 있다. 버커루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buckaroojean)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을 쓰면 추첨을 통해 버커루 비니를 증정한다. 문의 www.buckaroo.co.kr 02)2142-5421

김장할때도 '강강술래'

18일까지 천일염 증정 냉면무료쿠폰 행사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벤트를 펼친다.

홍대점(02-3143-6635)에서는 수능일과 맞물려 김장시기가 다소 늦춰진 점을 감안해 오는 18일까지 신규로 멤버십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고객에게 김장의 필수 재료인 국내산 천일염 3kg(1만원 상당)을 무료 증정한다.

또한 수험생 가족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구이메뉴(꽃살·한우양념구이·돼지양념구이·술래양념구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무료 제공한다. 18일까지 아래 냉면쿠폰을 오려 매장에 가져와 구이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물냉면 또는 비빔냉면을 공짜로 준다.

100% 한우로만 우리네 맛이 진하고 방부제와 색소, 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은 간편가정식 한우사골곰탕과 방부제를 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도 50% 할인한다.

온라인쇼핑몰(www.sullai.com)에서는 오는 11일까지 한우양념불고기 공동구매 행사를 벌인다. 5명 이상 주문 시 한우불고기1호(1.8kg)를 정상가보다 64% 할인된 3만5000원에 살 수 있다.

냉면 무료 쿠폰 (구이메뉴 주문시)
강강술래 홍대점 사용기간 : 2012년 11월 18일까지

11월 7일 TODAY! 드디어, 공연 개막!!!

프리뷰 공연〈11월7일~11일〉에 한해 R석 25,000원, S석 10,000원

(주)악어컴퍼니 연극

"9살에 만나고, 19살에 사랑하고,
29살에 내 인생이 되었다."

연극

나쁜자석

Our Bad Magnet

2012년 11월 7일 ~ 2013년 1월 27일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원작 | Douglas Maxwell 연출 | 추민주 출연 | 송용진 홍우진 정문성 장현덕 이동하 이규형 김보강 김대현

예매 인터파크 1544 1555 문의 (주)악어컴퍼니 1666-7527

김혜수 "나 '댕기머리'한 여자야"

한방샴푸의 원조 브랜드 댕기머리가 새로운 모델로 배우 김혜수를 발탁해 화제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소비자의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김혜수를 선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최근 김혜수는 댕기머리의 한방 성분함유량이 한방샴푸 브랜드 중 유일하게 33%라는 사실을 전달하며 탈모예방을 위한 두피건강을 강조하는 광고를 촬영했다. 특유의 당당한 어투로 "색깔부터 다른데?"라고 반문하며 한방샴푸의 선택 기준을 제안한다.

막연한 이미지 광고보다 정확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진심마케팅을 전개하는 댕기머리는 브랜드의 진실성을 알세우고 있다.

전통제조방식을 고집해온 댕기머리의 조혜경 상무는 "않약에 한방추출물을 조금 넣었다고 우리가 한약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한방샴푸의 본질은 한방성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 선택 기준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찾았다! 멋스러운 다운파카

후드 달린 리바이스 신제품 색감 탁월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가 올 겨울 따뜻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아줄 신제품 리바이스 다운 파카 2종을 출시했다.

남성 신제품 리바이스 롱 구스 다운 재킷은 가벼운 거위털을 사용해 활동성을 높인 제품이다. 거위 솜털의 비중을 90%로 높이고, 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제작해 보온성을 강화했다.

모자에는 퍼 트리밍을 장식해 포근한 느낌을 살리고 캐주얼한 분위기까지 더했다. 컬러는 깊이감 있는 네이비 컬러인 드레스 블루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된다. 가격은 37만8000원.

여성 제품으로는 퀼팅 디테일로 착용감이 편하고 은은한 광택 소재라 캐주얼한 느낌을 더한 리바이스 다운 파카를 선보였다. 허리 위쪽 부분을 사선으로 처리해 슬림하게 보이도록 했고 어깨 뒤에도 밴드를 넣어 트렌디한 느낌을 살렸다.

은은한 네이비 색상인 디애블로 나이트와 스틸 그레이로 출시되며, 가격은 32만8000원.

문의 levi.co.kr /박지원기자

아이오페 '고소영 에센스' 100억 매출 대박

'고소영 에센스'라 불리는 아이오페의 발효 에센스 신제품인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이 히트상품 대열에 올랐다.

아이오페는 바이오 에센스가 출시 2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바이오 에센스는 바이오 활성성분을 94% 함유하고 있는 수의 에센스로 단시간에 피부를 투명하고 매끄럽게 가꿀 수 있게 한 제품. 출시하기도 전에 사전 예약으로 9만개가 팔려나가기도 했다. 아이오페 브랜드 매니저 장혜진 팀장은 "고객들이 제품의 효능을 체험하면서 폭발적인 입소문으로 단일 품목 출시 두 달 만에 100억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아이오페는 이를 기념해 기존 제품보다 50% 더 많은 양을 담은 252㎖ 대용량 제품(7만2000원)을 연말까지 아리따움 매장에서 한시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pjw@

CJ E&M

THE LOVE STORY

Musical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흡입력이 대단한 공연! 배우들의 가창력,
인물들의 심리를 조명과 무대로 잘 표현한 작품.
rem92**

눈물나게 슬픈 사랑이야기,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
베르테르의 열정적인 사랑
Parkca**

공연이 끝난 지금, 순간의 기억으로 남기보다는
가슴이 아련해져 가슴속의 추억이 되는 작품'
INGK*

당신의 사랑을 응원하는 베르테르 특별 50% 할인 이벤트

11월 11일 베르테르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특별한날, 특별한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애절한 사랑의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당신의 사랑을 응원 합니다.

예매 가능 기간일	11.6(화) ~ 11.11(일) (*현장 예매 시에도 할인 적용)
예매 가능 공연일	11.11(일) 공연에 한함
할인율	R, S석에 한해 50%

2012.10.25~12.16 유니버설아트센터

| 출연 | 김다현 김재범 성두섭 전동석 김아선 김지우 홍경수 이상현 서주희 연보라 지현준 오승준 외

metro entertainment

엠넷 '슈퍼스타K4' 남4에 오른 정준영과 홍대광 딕펑스의 김재흥 김태현 박가람 김현우 로이킴(왼쪽부터)이 1:1 인터뷰에서 'K'를 상징하는 핸드사인을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킴>

"엄친아? 과대평가 됐어요"

'슈스케4' 최종 TOP4 모닝토크

Mnet '슈퍼스타K4' 208만 명의 참가자 중 딕펑스 로이킴 정준영 홍대광만이 남았다. 무대 위 처열한 경쟁의 현장을 잠시 벗어나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들과 6일 영등포 엠캠에서 진솔한 '모닝토크'를 나눴다.

밴드의 재미를 보여드릴게요

한국 록의시대 이제 열립니다

듣기편한 음악 감흥 주고싶어

전 돌직구 창법 좀 더 겸손해져

딕펑스

김재흥(25·베이스&리더) 박가람(24·드럼) 김태현(25·보컬) 김현우(25·키보드)

"딕펑스를 통해 밴드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딴따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경연에서 슈퍼세이브 제도를 통해 부활했다. 재흥과 태현은 "만약 슈퍼세이브를 한 번 더 쓸 수 있다면 허니지한테 주고 싶다. 얼마나 피 말리는 기분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가람은 착하고 노래 잘했던 이지혜에게, 김현우는 참가자 모두에게 한 번씩 기회를 더 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미 홍대에서 유명세를 치른 만큼 KBS2 '톱밴드' 출연이 기대되기도 했다. 실제로 밴드 군의 키보드 실력을 자랑하는 김현우는 세션으로 서기도 했다.

"톱밴드 안 나온다면서 왜 저기 있어? 그런 소리 들을까봐 세션을 그만두려고도 했었어요. 일부러 고개 푹 숙이고 연주했는데 결국 노출이 되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나가수'를 보는 기분이에요. 유명한 사람들끼리 '내가 1번이야~'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반면 슈스케는 일반인들의 오디션이라는 느낌이 강해요."(현우)

로이킴(19)

"듣기 편한 음악으로 감흥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슈스케 최강 비주얼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그는 "저번 주 자신의 2:8 가르마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며 미소지었다.

"다양한 콘셉트에 도전하다 보니 디너쇼를 연출해 봤습니다. 주변에선 절대 눈썹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성숙한 얼굴인데 머리를 어찌거 하든… 하하하."

편안한 보컬과 음색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음악 외적인 것들로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탁주제조협회 김홍택 회장의 아들이자 미국 명문 조지타운대학교의 경영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 환경이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저도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울면서 공부한 적도 있거든요. '언젠간 알아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잡생각을 버렸죠. 학업도 계속 하겠지만 평생 노래하겠다는 마음 역시 굳건합니다."

방송 출연을 반대했던 아버지를 두 달 만에 경연장에서 만난 그는 "제가 노래할 때 계속 엄지만 들고 계시더라.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크게 노래한 건 처음"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정준영(23)

"저 인기비결은 담커기 거져야 할 자질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록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숙소 규칙상 통신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에 세 번째 경연에서 선보인 '그것만이 내 세상'의 '음이탈' 후폭풍을 뒤늦게 알았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탈락자 발표 때 살짝 멘탈 붕괴가 왔던 것 같아요."

중국 청디오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마음의 '노래 짱'이었다는 그는 밴드를 하기 위해 부모님 몰래 한국에 왔다.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Comedy TV '얼짱시대' 등에 출연하면서 유명 기획사로부터 아이돌 데뷔 제안도 받았지만 '귀차니즘'으로 모두 거절했다.

자유분방한 태도와 주관이 뚜렷한 음악세계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자신의 색을 고수할 생각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심사위원 말씀도 참고 정도만 하려고요. 특이해서 인기가 많다는 말씀은 해주시는데 여자들이 귀여워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홍대광(27)

"남4 생존자 중 유일한 돌직구 창법 참가자입니다. 우승하면 병원 일로 고생하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2달 만에 8kg을 감량한 그는 쏟아지는 외모 칭찬에 쑥스럽다는 듯 몸만 이리저리 흔들었다. 오히려 미남 참가자들을 제치고 사전 온라인 투표 1위에 안착한 주를 담당 위기의 순간으로 꼽았다.

"제가 왜 주목받는지 의아해요. 외모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가 한번 실수하면 바닥을 칠 수도 있잖아요."

훈훈하고 착한 이미지로 여성팬들을 점차 확보해가고 있지만, 모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도 들려온다. 반항아 콘셉트 도전 의향을 물어보자 특유의 눈웃음으로 고개를 가로젓는다.

"제가 나쁜 남자를 하면 웃길 것 같아요. 하하하. 준영이가 착한 남자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이성편 공략법은 정말 모르겠어요. 5년간 거리 공연을 하면서 한 번도 선물을 받거나 번호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직 저한테는 먼 얘기 같네요."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디자인/원지영

www.musicalwhy.co.kr

학습만화 Why?시리즈 〈쫓겨난 임금〉 원작

국립중앙박물관 가족 뮤지컬을
단돈 1만원에 볼 수 있다면?!

2013. 1. 11 ~ 3. 2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용

공연기간 2013년 1월 11일 ~ 3월 2일

공연시간 화~토 11시, 14시 / 일 13시, 16시
(월요일과 2월 10일 : 공연 없음, 1월 11일과 2월 11일 : 14시 1회)

예매문의 (02)3404-9253

주 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예림당

Star bag

이윤지 '힐링캠프' 1일MC

배우 이윤지가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에 한혜진을 대신해 1일 MC로 나선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이윤지가 SBS '대풍수' 촬영으로 지방을 오가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도 2일 부친상을 당해 잠시 자리를 비운 한혜진과의 의리를 위해 흔쾌히 제작진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녹화는 7일에 진행된다.

신혜성 다음달 스페셜 앨범

신화의 신혜성이 다음 달 4일 스페셜 앨범 '윈터 포이트리'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발매한 '임브레이스' 이후 1년 만의 솔로 앨범으로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감성의 신곡으로 채워졌다. 다음 달 30~31일에는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공연도 개최한다. 2012~2013 더 에어스 저니'라는 이름으로 일리며 신곡을 소개한다.

유럽 2만팬 말춤 'K-팝 새역사'

싸이 파리 공연 역대 최대규모 플래시몹 "세계에 한국 음악 알렸다" 옥관훈장 받아

싸이가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인 2만 여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싸이 트위터)

싸이가 유럽에 상륙하자 2만여 팬들이 말춤으로 화답했다.

그는 5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맞은편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플래시몹에 참가한 팬들을 만나는 것으로 유럽 일정을 시작했다. 프랑스 라디오 음악채널 NRJ가 기획한 행사로 유럽 전역에서 온 팬과 파리 시민, 관광객 등 2만여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던 K-팝 팬들의 플래시몹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세계 정상급 팝스타를 응원하는 플래시몹으로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열성 팬들은 2시간 전부터 현지에 나왔고, 팬들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싸이를 보기 위해 치열한 자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너무 많은 인파가 빽빽히 들어차는 바람에 제대로 말춤을 추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싸이는 4명의 댄서와 함께 무대에 올라 '강남스타일'을 불렀다. 공연이 끝난 뒤 먼 곳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팬들을 위해 무대 옆 계단의 난간으로 올라가 다시 한 번 '강남스타일'을 열창했다. 싸이는 프랑스 팬들의 열정적인 호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 유럽 투어 때 파리에서 가장 먼저 콘서트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싸이는 주최 측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파리에 도착했다.

6일에는 80여 개 프랑스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에는 영국으로 가 옥스퍼드대에서 '강남스타일'의 성공 비결과 자신의 인생관 등을 강연한다. 현지 미디어와 인터뷰도 진행한다.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 11일 현지에서 열리는 '2012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 참가한다.

한편 싸이는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을 알린 공을 인정받아 같은 대중가수로는 이례적으로 옥관 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용필(2003 보관), 이미자(2009 은관), 하춘화(2011 은관) 등이 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한국군 무기 좋아도 북한 못이긴다"
1588-3600
중앙SUNDAY
"좌우 모두 틀 정해놓고
안 따른다고 나를 공격"
가, 마살라마"

콘서트계 새 강자 '어반자카파'

단독 콘서트 6연속 매진 행렬… "내년 전국 투어 확대"

3인조 밴드 어반자카파가 공연계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다.

다음 달 21~22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릴 단독 콘서트 '메리 어반자카파-도시의 크리스마스' 티켓은 예매 10일 만에 매진됐다. 9월 올림픽홀 3000석을 매진시켰던 이들은 6회 연속 단독 콘서트 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메이저 밴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서울 외에 지방 대도시에서도 공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14~15일 예정됐던 부산 센텀시티 공연에 이어 24~25일에는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소속사 플럭서스 뮤직의 관계자는 "서울 공연의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수도권 팬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벌써 티켓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국 규모로 투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이하이 주간 음악차트 1위

SBS 'K팝 스타' 준우승자 출신 가수 이하이가 주간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데뷔 싱글 '1, 2, 3, 4'는 멜론·올레뮤직·엠넷·소리바다·네이버·다음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주간(10월 29일~11월 4일)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하이는 올해 데뷔한 여성 솔로 가수 중 처음으로 주간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뮤직비디오는 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 조회 4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마의' 사극 왕이로소이다

시청률 14.7% 1위 '인기 상승세'… '대왕의 꿈' '대풍수' 고전

지상파 3사의 사극들이 제각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영 초반 혹평이 잇따랐던 MBC '마의'가 1위에 안착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방송분 시청률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4.7%(AGB닐슨미디어리서치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아역 분량 때 식상한 구성과 톱 연진의 미숙한 연기로 고전했던 이 드라마는 지난달 22일 방송된 7회부터 성인 분량으로 넘어가면서 짜임새 있는 줄거리와 조승우·이요원 등 배우들의 열연에 입소문을 타며 탄력을 받았다.

이에 5일 같은 시간에 첫 방송한 SBS 드라마 '드라마의 제왕'은 김명민의 열연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평이 쏟아졌음에도 6.5%의 불안한 시청률로 출발했다.

반면 KBS에서 사극 흥행 불패 카드 최수종을 내세워 야심차게 선보인 주말 사극 '대왕의 꿈'은 주연 배우들이 잇따라 부상을 당하는 악재를 만나 결방 사태를 맞았다.

선덕여왕 역의 박주미가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해 4~5주 진단을 받은 데다, 김춘추 역의 최수종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데 이어 지난달 낙마로 인대가 파열돼 10월 방송부터 2주간 결방한다.

그런가 하면 SBS가 2년의 기획 단계를 거쳐 200억원을 투입한 수목극 '대풍수'는 예상 외의 낮은 시청률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에 밀려 8회가 방영된 현재까지 10%에 머물며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 관계자는 "낮은 시청률이 이어져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는 한편 "지성·김소연 등 성인 연기자가 본격 등장하는 7일 9회 방송분 이후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선허기자 sun0427@metroseoul.co.kr

韓감독 할리우드행 대서특필

김기덕 감독 은관훈장 영예 이정진·조민수는 옥관훈장

영화 '피에타'로 올해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사진) 감독이 은관훈장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김기덕, 싸이 등 10명을 201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훈장 포상자로 선정했다.

김 감독은 비주류로 출발해 세계적 영화제인 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2004년 '사마리아'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바 있다.

이외 가수 금사향, 작가 김수현, 영화배우 윤일봉이 함께 은관문화훈장을 수훈받는다. 배우 나문희, 예술감독 송승환, 가수 송창식은 보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배우 이정진과 조민수는 싸이와 함께 옥관문화훈장 수훈자로 결정됐다.

/김민준기자 mkim@

서부에선 청중 미국 마트

AFM 특집판 보도… "현지 시스템 적응이 성공 관건"

미국 영화 산업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터의 아메리칸 필름 마켓(AFM) 특집판이 한국 영화인의 할리우드 진출 현황을 대서특필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한국이 (태평양을) 건너다(South Korea Crosses Over)'란 제목의 메인 기사에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인 한국이 김지운(라스트 스탠드)·박찬욱(스토커)·이재한(더 킬러)처럼 자국에서 검증받은 유명 감독들을 앞세워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영화인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선 "2000년대 초반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엽기적인 그녀'·'시월애'·'장화, 홍련' 등의 리메이크 판권을 구입하고, 이병헌이 '지 아이 조' 시리즈에 출연하면서부터"라고 분석했다.

앞서 1990년대 오우삼·서극 등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았던 홍콩 감독들과 지금 한국 감독들의 차이점에 대해선 "김지운이나 박찬욱 같은 한국 감독들은 촬영감독 등 자국 동료들의 할리우드 진출을 도우면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함께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고 비교했다.

또 두 나라의 영화 제작 시스템에 익숙

김지운 감독(왼쪽), AFM에 차려진 한국영화 세일즈 부스.

한 한 한국 영화 프로듀서의 말을 빌려 "한국의 영화 제작 현장에선 감독이 왕이지만, 제작과 촬영 등 각 분야가 나뉘어 있는 할리우드에선 그렇지 않다"며 "한국 영화감독들이 할리우드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1월 '라스트 스탠드'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김지운 감독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공포영화로 할리우드 신고식을 치르고 싶지 않아 수 년을 기다렸다"면서 "한국에서와 달리 현장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다소 힘들었지만 무척 만족스러운 작업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할리우드에서 감독으로 생존하려면 오로지 좋은 작품을 계속 선보이고 또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만의 비전을 잃지 않고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우리 시대의 여러 훌륭한 감독들처럼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타모니카=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하지현 지음/푸른숲 펴냄

'심야 치유 식당' 두 번째 이야기. 전작이 개인의 '증상'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의 주제는 사랑이다.

애매모호한 관계를 지속하는 힘, 사랑의 기준점으로서의 첫사랑, 수동적인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랑하는 법, 고백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와 신화, 그리고 결혼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 교수는 사랑의 단계마다 노사이드의 주인 함주의 입을 빌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소설 풀하우스 TAKE 2

원수연 유형진 지음/랜덤북스 펴냄

황정음·노민우·박기웅 주연 드라마 '풀하우스' 시즌 2를 소설로 만난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 테이크원은 까칠 대마왕 이태익(노민우)과 자유분방하지만 우주 최강 지백인 원강휘(박기웅)로 구성된 2인조 유닛. 까칠한 태익과 밝은 성격의 원강휘는 매일 티격태격하며 서로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이다. 중국에서 콘서트를 연 테이크원. 뒤늦게 무대에 오른 강휘는 키스 퍼포먼스를 통해 가까스로 태익을 구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지음/김고명 옮김/비즈니스북스 펴냄

누적판매부수 2000만 부, 세계가 원하는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의 새로운 성장에 관한 책.

이 책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세상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성장은 삶의 필수조건이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15가지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존 맥스웰은 말한다.

빚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최현선 김희수 지음/미디어윌 펴냄

뉴스에서는 연일 국가경제의 뇌관인 가계빚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60%가 빚을 지고 있고, 가계부채의 총액은 1000조원에 달한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진 걸까?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건전한 소비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빚지는 세상.

이 책은 신자유주의라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얘기한다. 또 빚을 지게끔 유도하는 세상 속에서도 빚지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 후, 그럼에도 빚진 이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면

월도 스님 글/박동기 그림/문학스케치 펴냄

월도 스님의 행복으로 가는 마음 이야기.

월도 스님이 담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조언하기 위해 엮은 글이다.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님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진리의 가르침을 빌어 세상의 이치와 인생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한 자락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명상하기

조너선 S. 캐플런 지음/강도은 옮김/행성B잎새 펴냄

임상 심리학자 조너선 S. 캐플런의 명상 에세이.

저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생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urbanmindfulness.org'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독자들과 함께 여러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임상 고객들, 그리고 블로그 독자들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 만든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만들었다.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

조병동 지음/미래지식 펴냄

10년간 각종 수익률 대회에서 다수의 우승을 했고 현재 주식 및 선물 옵션의 전업 트레이더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저자가 그동안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와 그 해결책에 대해 얘기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트렌드처럼 여기고 있는 성공적인 가치 투자 방법과 장기 투자 시 수익을 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다.

얇은 지식? 독자는 좋다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최진기 지음/스마트북스 펴냄

최진기씨는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현사회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게 안잡고 쉽고 재밌게 인기강사답게 술술 써내 끝장 볼때까지 흥미진진

최진기는 현재 이투스 강사다. 사회탐구영역 점유율 1위의 인기강사다.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를 출간했다. 19번째 책이다.

서울 연희동에 사는 독자 김지연씨는 "철학이나 인문이라고 하면 왠지 머리 아플 줄 알았는데,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 등이 융합돼 있어 진짜 재미있다"고 말했다.

최진기 본인이 어려운 지식도 풀어서 쉽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재미를 원해 부응했지만 '인문학의 지도'로 손색 없는 책이다. 지난주 개인 사무실이 있는 잠실 롯데캐슬에서 그를 만났다.

— 직장인들이 왜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하나

● 세상이 힘들다. 하이징거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로 '열광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다. 인문학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 아렌트를 읽으면 슬프다.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이 얼마나 슬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때려치워야 한다. 성공하려고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다.

— 인문학 지도라는 평답게 쉽고, 재밌다. 하지만 얇은 것 아닌가.

● 책 쉽은 쉽다. 보드리야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뭘 이야기인가.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 대량복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 사회는) 재밌어야 모든 것이 되지 않나. 재밌고 쉽지만 알고 보면 그 내용은 총체적이다. 사회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그래도 일부 지식인들은 한계를 지적한다

● 입문서다. 입문만 하면 되지.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더 하면 되고. 루터가 유명해진 것은 95개조 반박문을 썼기 때문이 아니다. 독일어로 써서 붙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전형적인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얇은 지식이 진짜 지식을 방해한다는 계몽적 사고에 화가 난다.

— 책은 언제 쓰나

● 책을 쓰는 것은 노동이다. 시간 곱하기니까. 다른 취미가 없다. 일 끝나고 밤에 쓴다.

서울 혜화동에 사는 독자 최민석씨는 "쉽고 디테일하고 재미있다. 현실과 연관된 적절한 사례들이 많아서 몰입해서 끝까지 읽었다"고 말했다. 그럼 됐지 싶다. 플라톤에서부터 장 보드리야르까지 모두 42개의 생각이 정리된 책을, 끝까지 읽었다지 않는가.

/글·사진 김민성기자 @metroseoul.co.kr

'다 잘될거야'식 위안에서 벗어나라

화제의 책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 지음/송태욱 옮김/사계절출판사 펴냄

"이것은 부드러운 제노사이드(대학살)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강상중(사진) 도쿄대 교수는 2001년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취재 시 만난 현지인의 말을 전했다.

강 교수가 보기에 현재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겪고 있는 상시적인 경제위기와 이 때문에 증폭된 현대인의 불안은 '느슨한 제노사이드'와 다르지 않다.

고민하는 힘 2편이라 할 수 있는 '살아야 하는 이유'의 내용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암울한 현대인들에게 '비관적이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았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로고테라피의 창시자로 알려진 빅터 프랭클의 고찰을 인용했다.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다. 죽음이 일상화된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삶에 대해 '예'라고 답하라"라고 말하며 '삶의 의미'를 구하려고 했던 이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 행복관 등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란 우려에서 이 책을 썼다"면서 "아우슈비츠가 현재 개인들의 경험이 될 수는 없지만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태. 이것이 일상적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삶과 아우슈비츠의 삶이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그래서 저자는 "비관론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처방한다. 같은 맥락에서 "만성적인 불안의 시대에 안이한 낙관론의 처방을 내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범죄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비관적인 시대에 비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역설적으로 희망을 최소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작업을 지속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담고 있다. /글·사진 김민성기자

'수험표=할인표' 공연 반값에

수능생 대상 연극·뮤지컬 할인 이벤트 잇따라

대입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겨냥해 연극과 뮤지컬을 반값에 볼 수 있는 할인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대학로 예술마당 4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는 수능 전날인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의 공연을 반값에 제공한다.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시 수험표 1장당 티켓 4매까지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 수험표를 지참하고 와야 관람이 가능하다.

두 할머니와 세 마리 동물의 동거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지붕 아래서 밥과 정을 나누면 식구가 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의 02) 2278-5741

라이브쇼 '웰드비트 비나리'는 수능 당일인 8일부터 연말까지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가지고 공연장인 세네코아 2관 비나리 전용관을 방문할 시 50% 이상 할인된 1만5000원에 티켓을 준다. 타악·가악·판소리·민요를 대중적으로 재해석한 콘서트로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쇼를 펼친다.

문의 02) 744-6800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릴 뮤지컬 '그리스'(사진)도 공연 기간 동안 수험표 지참 시 수험생 본인에 한해 40% 할인해준다. 1950~60년대 방황하는 미국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려 대학 생활을 앞둔 수험생들이 즐겁게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KBS2 '개그콘서트'의 노우진·이동윤·유민상이 깜짝 재미를 더한다.

문의 02) 440-0500

다음 달 6~30일 같은 장소의 소극장에서 열릴 연극 '심이이'(?) 역시 수험생에게 티켓을 반값에 준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남편된 창녀가 남매와 오시노 공작, 그리고 올리비아라는 여자 백작 사이의 청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박선영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칸 광고제 수상작 온다

9~21일 전시회 – 정상들 키스 포스터 등 선봬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프랑스 전 대통령 사르코지와 독일 총리 메르켈, 팔레스타인 총리 살람 바이드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등이 뜨거운 키스를 나눠 전 세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광고 포스터들이 한국을 찾는다.

지난 6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59회 칸 라이언즈(국제광고제) 수상작들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9~11일 홍대 KT&G 상상마당과 15~21일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다.

비우호국 원수들의 키스장면을 합성한 사진으로 충격을 안겨준 베네통의 '미워하지 않기' 시리즈 등 주요 수상작 79편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대형스크린을 통해 칸 수상작 하이라이트 영상물이 상영된다.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포틀의 '처음으로 다시' 등 100여 편을 만날 수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타블로의 '잃어버린 3년'"

지금 daum 소셜에서는 와글와글

SBS '힐링캠프'에 타블로가 나와 무려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힐링캠프에 가장 적합한 출연자였다. 그동안 타블로에게 가해진 사회적 살인행위는 모두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타블로를 공격하던 타진요는 법정에서 처벌받았지만, 그렇다고 타블로가 받았던 고통이 모두 사라질 수는 없다.

특히 타블로가 올해 3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뭉클했다. 암을 이겨내고 활발하게 생활하던 아버지가 타블로 논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재발해 숨진 사연에서 타블로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타블로를 비난하던 타진요 회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엄벌을 받게 되자 선처를 호소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상대를 옭고 늘어지는 무조건적인 병적 집착은 모두를 죽이는 일이다.

/디시위

다블로 사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들 한 번씩 타진요 말이 맞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닌지. 언제부터 우리에게 관용존이 이렇게 깊이 스며들었나.

pop

어제 출연한 타블로, 강혜정 부부와 딸 하루. 어려운 고비를 이겨낸 가족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4801

20만 명 타진요의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 규명에 성공한 타블로. 하지만 아직도 극복 못한 '잃어버린 3년'이 있다.

tjuhw

만일 내가 타블로처지라서 누군가 죄도 없이 나를 오해하고 선동하고 괴롭히고 거짓을 지어낸다면 어떨까!

월렉스

고소는 타블로가 한 건데 왜 타진요가 자초한 것처럼 얘기하나?

/정리=김현정기자 hjkim@

wind8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8 Do you have a cell phone? 소유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시리즈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11. 이 표가 당신 거예요?
112. 네, 그런 것 같아요.
113. 형제나 자매가 몇이나 있어요?
114. 제 모자 당신이 갖고 있지 않나요?
115. 네, 당신 모자와 코트 모두 가지고 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11 Does this ticket belong to you?
112 Yes, I think it does.
113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do you have?
114 Don't you have my hat?
115 Yes, I have both your hat and your coa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11~115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John, don't you have my hat?
B Yes Harry, I have 둘 다 your hat and your coat.

정답 both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Does this [cell phone / passport] belong to you?

2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 aunts and uncles] do you have?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he Internet has made it easier for vehicle buyers to ______ for banks that offer the best loans.
(A) search (B) purchase
(C) find (D) figure

02 Delemarke's profits are expected to rise ______ over the next ten years as the company begins to offer new services abroad.
(A) closely (B) lately
(C) cheaply (D) steadily

01. 인터넷으로 인해 차량 구매자들이 가장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을 찾기가 쉬워졌다.
해설 [illegible] (A) search가 정답이다. [illegible]
어휘 vehicle 차량 loan 대출 purchase 구입하다 figure 계산하다
정답 (A) search

02 델레마르케의 수익은 [illegible]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illegible] steadily [illegible] constantly, continuously도 같이 쓸 수 있다.
어휘 rise 상승하다 abroad 해외로 closely 밀접하게 lately 최근에 cheaply 싸게
정답 (D) steadi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주제별 표현

• 학교

make new friends 새 친구를 사귀다
after-school activities 방과후 활동
wear a school uniform 교복을 입다
undergraduate 대학생
take online classes 온라인 강의를 듣다
attend a class 수업에 [illegible]
transfer to ~으로 [illegible]
earn credits 학점을 따다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
enroll in summer classes 여름 학기를 신청하다

• 직장

job requirements 자격 요건
telecommuting 재택 근무
qualification for the job 직업에 필요한 자격
deal with problems 문제를 처리하다
work hours 근무 시간
transportation fees 출근 비용, 교통비
educational support 교육 지원
job applicant 취업 지원자
be suitable for ~에 적합하다
be[get] promoted 승진하다
lay off employees 직원을 정리해고하다
special benefits 특별 혜택, 복지
high-paying job 고소득 직업
reimbursement 환급, 상환

정성훈·김주찬·이진영·홍성흔·정현욱(왼쪽부터)

김주찬·정성훈·이진영·정현욱 잡아라

FA 쟁탈전 신생팀 NC 합류 … 한화·KIA도 영입 전념 '과열조짐'

김주찬·홍성흔·정성훈·이진영·정현욱 등 거물급 프로야구 스타들이 FA 시장을 노크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전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2013년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정현욱(삼성)을 비롯해 박경완·권용관·이호준(이상 SK), 강영식·홍성흔·김주찬(이상 롯데), 유동훈·이현곤·김원섭(이상 KIA), 김수경·강귀태·송지만·강병식·이정훈(이상 넥센), 이대진·손인호·정성훈·이진영(이상 LG), 마일영(한화) 등 총 21명이다.

이들 중 신규로 취득한 선수는 8명이고, 재자격 선수가 4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9명이다. FA 자격선수는 8일까지 KB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9일 FA 승인 신청 선수를 공시한다.

공시된 선수들은 10~16일 원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7~23일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올해 FA는 신생팀 NC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또 KIA와 한화는 공개적으로 2명 이상 영입을 목표로 FA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한 팀에서 최대 2명까지 영입이 가능하고, NC는 최대 3명까지 데려올 수 있다. 원소속팀 선수들은 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김주찬·정성훈·이진영·정현욱·홍성흔의 행보가 주목된다. 호타준족을 자랑하는 김주찬은 생애 첫 FA 자격을 얻어 '대박'을 노리고 있다. 삼성 불펜의 핵 정현욱은 구원진이 약한 구단의 영입 대상 1순위다.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정성훈·이진영은 안정된 수비와 타력을 겸비해 공수에서 가치가 높다. 지명타자 홍성흔은 장타력을 갖춰 존재가치가 높다.

한편 김수경·강병식·이대진은 현역에서 은퇴해 코치로 지도자 인생을 시작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박지성 칭크' 발언 英축구팬 법정선다

박지성(31·퀸즈파크 레인저스·사진)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영국 축구팬이 법정에 선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지난달 21일 에버튼전에서 박지성에게 '칭크(chink)'라고 말한 윌리엄 볼리싱어 경찰에 체포됐다고 6일 보도했다.

에버튼의 팬인 볼리싱은 1-1로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던 가운데 박지성을 향해 '저 칭크를 쓰러뜨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칭크'는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포괄적인 의미로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한다.

영국에는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어 출신지나 인종 등을 들어 다른 이를 모욕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김민준기자

"던질 수 있을 때까지 던지겠다"

2년 만에 한국 찾은 구대성 호주대표 아시아시리즈 참가

'대성불패' 구대성(43·시드니 블루삭스·사진)이 2년여 만에 한국땅을 밟았다.

구대성은 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지난해 호주리그 우승팀인 퍼스 히트 선수단과 함께 입국했다. 8~1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펼쳐지는 2012 아시아시리즈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그는 팀은 다르지만 호주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임대 형식으로 퍼스 히트의 유니폼을 입고 아시아시리즈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삼성을 비롯해 유탐 롯데, 요미우리(일본), 라미고 몽키스(대만), 퍼스 히트, 차이나 스타즈(중국) 등 5개국 6개 팀이 참가한다. 6개 팀은 A조(삼성·라미고 몽키스·차이나스타즈)와 B조(롯데·요미우리·퍼스 히트)로 나누어 예선전을 치른 뒤 각 조의 1위 팀이 결승에서 만나 아시아 클럽챔피언의 최강자를 가리게 된다.

구대성은 "호주에서 지난 2년 동안 이기는 상황에서 등판해 블론세이브를 기록한 것이 단 한 번에 불과했다"며 "던질 수 있을 때까지 선수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내년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도 호주대표가 제안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KT 10구단 창단 공식 선언

KT가 수원 연고의 야구단 창단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스포츠를 통한 국민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프로야구에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신생구단으로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여 1000만 관중 시대 개막에 일조하고 싶다"는 창단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회사 규모뿐 아니라 프로농구·골프·게임·사격·하키 등의 스포츠단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경기도와 수원시는 KT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10구단 창단 지원을 약속했다. KT는 수원구장을 2편5000석 규모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석채 KT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이 6일 프로야구 제10구단의 창단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SAMSUNG